

수원문화재단에서 알려드립니다

월간 뉴스레터에 소개된 공연, 전시, 행사, 체험 일정은 코로나19 상황으로 제작 당시 시점과 다를 수 있다는 점 너그러운 양해 부탁드립니다. 코로나19의 추이에 따라 재단의 각종 행사와 프로그램, 시설 운영 등이 변동될 예정이며, 이와 관련하여 자세한 사항은 수원문화재단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수원문화재단은 코로나19 예방에 최선을 다하고 있으며 12월에도 시민 여러분의 건강을 기원합니다.

문의 031 290 3600



12월 문화소식

공연



발레뮤지컬 <에디트 피아프: 사랑의 찬가>

일시 12. 2.(수) 19:30
장소 수원SK아트리움 대공연장
요금 R석 15,000원 / S석 10,000원
대상 8세 이상

예매 인터파크, 수원SK아트리움홈페이지
문의 공연부 031 250 5300

프랑스에서 설립된 SEO(서)발레단의 서미숙 예술감독이 재해석한 발레뮤지컬! 상승의 여왕 에디트 피아프의 '사랑의 찬가' 세계적인 명성을 지닌 에디트 피아프는 생계를 위해 가수가 되고, 노래로 성공하게 되지만, 그녀에게 불행은 끊임없이 평생을 뒤따른다. 자신을 만나기 위해 비행기를 탔다가 추락사고로 사망한 연인을 위해 발표한 노래가 바로 '사랑의 찬가'다. 프랑스 국민가수 에디트 피아프의 일생이 발레뮤지컬로 아름답고 호소력 있게 그려진다.



연극 <창문 넘어 도망친 100세 노인>

일시 12. 4.(금) 19:30
12. 5.(토) 16:00
장소 수원SK아트리움 소공연장
요금 전석 15,000원

대상 12세 이상
예매 인터파크, 수원SK아트리움 홈페이지
문의 공연부 031 250 5300

세계사를 뒤흔든 100세 노인이 전하는 파란만장한 모험담과 따뜻한 위로! 삶의 불꽃을 터뜨리는 백세노인이 돌아왔다! 2018년 국내 초연 당시 재기발랄한 형식으로 화제를 모은 연극 <창문 넘어 도망친 100세 노인>이 수원을 찾는다!



SEO(서)발레단 호두까기인형

일시 12. 5.(토) 14:00
장소 수원SK아트리움 대공연장
요금 R석 30,000원 S석 20,000원
A석 10,000원

대상 48개월 이상
예매 인터파크, 수원SK아트리움 홈페이지
문의 공연부 031 250 5300

연말시절 대표 스테디셀러 낭만동화 <호두까기인형>! 크리스마스를 배경으로 소녀 '클라라'가 선물로 호두까기 인형을 받는다. 꿈 속에서 왕자로 변한 호두까기인형과 클라라는 환상의 나라에서 세계 각국의 춤을 보고, 사랑의 춤을 추는 명작공연이다. 차이콥스키의 낭만적인 음악 위 다채로운 춤이 한데 어우러지는 명작공연으로 전 연령 관람객이 모두 환상으로 빠져들게 될 것이다.



2020 아트리움 크로스오버 콘서트 <세종국악관현악단과 김경호의 화락(和樂)>

일시 12. 19.(토) 17:00
장소 수원SK아트리움 대공연장
요금 R석 30,000원 / S석 15,000원
대상 8세 이상

예매 인터파크, 수원SK아트리움 홈페이지
문의 공연부 031 250 5300

전통과 대중성의 만남, 국악과 김경호의 락(ROCK)이 만나 신명나는 콜라보레이션 창작음악을 선보이는 세종국악관현악단이 '인인화락'의 도시 수원에서 펼쳐내는 조화로운과 즐거움이 가득한 '화락(和樂)'의 무대로 여러분을 초대한다.



리틀씨어터 <파란토끼 롤루>

일시 12. 20.(일) 11:00, 14:00
장소 수원SK아트리움 소공연장
요금 전석 10,000원
대상 만24개월 이상

예매 인터파크, 수원SK아트리움 홈페이지
문의 공연부 031 250 5300

'파란토끼 롤루'에서는 신비로운 빛과 그림자, 인형들로 어린이들의 고운 감성을 깨워 상상력을 높이는 어린이연극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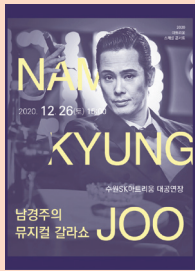


수원SK아트리움 기획공연 브런치시리즈 <당신의 클래식>

일시 12. 24.(목) 11:00
장소 수원SK아트리움 소공연장
요금 전석 10,000원
대상 8세 이상

예매 인터파크, 수원SK아트리움 홈페이지
문의 공연부 031 250 5300

'클래식과 여행 - Travel' 클래식과 어우러진 여행, 그리고 크리스마스 이브! 콘서트 가이드의 해설과 함께 최고의 연주자들이 선보이는 당신을 위한 클래식 선물이 찾아옵니다. 크리스마스 이브인 12월 24일은 '클래식과 여행'이라는 주제와 함께 세계여행과 더불어 크리스마스를 느낄 수 있는 감성 가득한 음악이 펼쳐진다.



2020 아트리움 스페셜 콘서트 <남경주의 뮤지컬 갈라쇼>

일시 12. 26.(토) 15:00
장소 수원SK아트리움 대공연장
요금 R석 30,000원 S석 15,000원
대상 8세 이상

예매 인터파크, 수원SK아트리움 홈페이지
문의 공연부 031 250 5300

로맨틱한 크리스마스 연휴를 보내는 방법, 사랑하는 연인, 가족과 함께 즐기는 뮤지컬의 낭만. 한국을 대표하는 뮤지컬 배우 남경주와 앙상블 배우들이 펼치는 화려한 뮤지컬 갈라쇼를 여러분에게 선사한다.



교육



미리 만나는 <파란토끼 롤루> 원데이 클래스

일시 12. 13.(일) 14:00
장소 온라인
요금 무료
대상 만24개월 이상

예매일 수원SK아트리움 홈페이지
11. 24.(화) 부터 선착순
문의 공연부 031 250 5325

'파란토끼 롤루' 공연을 예매하신 분께 드리는 혜택! 어린이 공연 '파란토끼 롤루'를 입체적으로 느껴볼 수 있는 기회, 파란토끼 롤루를 직접 만들어보고 느껴보는 시간

행사



아무튼, 도서관(생일파티 편)

일시 12. 4.(금) ~ 12. 5.(토)
장소 바른샘어린이도서관
요금 무료(홈페이지 신청)
대상 이용자 전체(프로그램별 상이)

접수 11. 24.(화) ~ 선착순
문의 책문화부 031 216 8131

바른샘어린이도서관 개관 15주년 특별프로그램 <아무튼, 도서관(leaf, 생일)>로 이용자와 12월 작가와의만남, 그림연극 행사로 함께 생일을 축하하고자 한다.

화홍 크리스마스

일시 12. 1.(화) ~ 12. 25.(금)
장소 화홍사랑채
(팔달구 수원천로 377)

요금 무료
문의 전통사업부 031 247 9366

화홍사랑채에서 펼쳐지는 <화홍 크리스마스>에서 특별한 크리스마스 추억을 만들어 보자.

12. 18.(목) ~ 12. 25.(금) : 셀프포토존에 크리스마스 소품, 의상 비치

12. 24.(목) ~ 12. 25.(금) : 산타, 루돌프 등과 마당에서 포토타임 이벤트

전시



서현 그림책 원화전 <마음이 싸-익>

일시 11. 19. ~ 12. 31.
매주 목 ~ 토 13:00 - 17:00
장소 슬기샘어린이도서관
요금 무료

대상 이용자 전체
문의 책문화부 031 247 8774

그림책 <눈물바다>, <간질간질>, <커졌다>의 저자 서현 작가의 그림책 원화 전시

체험



자연관찰세트 빌려드려요! - 선을 넘는 도서관

일시 ~ 12. 26.(토)
장소 지혜샘어린이도서관 3층
요금 무료
문의 책문화부 031 225 8054

어린이의 눈 놀리를 되찾고, 가족 모두의 건강을 위하여 자연 관찰 세트를 빌려드립니다. 예코백 안에는 쌍안경, 관찰경루(목), 집자리채, 채집통, 집게가 들어있다.

화중지병(書中之餅), 그림의 떡

일시 12. 6.(금) ~ 12. 13.(일)
금, 토, 일
장소 수원전통문화관
요금 3,000원

접수 수원문화재단 홈페이지
(온라인 예약)
문의 전통사업부 031 247 3762

전통병과의 기본인 백설기 위에 우리 민화에 등장하는 동백, 매화 등 토종 꽃을 점綴으로 빚어 올리며 결집임채(꽃자채)를 함께 사용하는 체험 프로그램

대면과 비대면이 어우러진 '호접지몽' 수원 예술

권재민 기자
경기일보 문화부



아트스페이스 광고 <그것은 무엇을 밝히나>

'호접지몽'(蝴蝶之夢), 장자의 두번째 장 <제물론>에서 파생된 이 사자성어는 장자가 꿈 속에서 꿈을 꿔서 다시 꿈을 꾸니 본래 모습이었다는 일화다. 표면적인 메시지는 '장자가 꿈에서 나비가 된 건가. 나비가 꿈에서 장자가 된 건가?'이지만 근본적인 메시지는 만물에 구분이 없다는 '물아일체' 사상이다.

대면과 비대면이 어우러진 최근 수원 관내 예술을 통해 우리 삶 속 실제적인 호접지몽, 물아일체를 접하고 있다. 수원시립미술관은 최근 아트스페이스 광고에서 열고 있는 전시 <그것은 무엇을 밝히나>를 대면과 비대면 형태 모두 선보이고 있다. 대면 전시가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전통적인 의미의 방모 관람, 도슨트 동행 형태 관람 등이라면 비대면 형태는 VR 시스템을 활용한 신개념 관람이다. 미술관 홈페이지의 VR관을 통해 미술관에 비대면 형태로 입장할 수 있으며 특정 구간을 클릭하면 해당 구간에 설치된 예술작품 사진과 영상, 설명 등을 동시다발적으로 즐길 수 있게 했다.

이외에도 지난 11월 6일까지 열린 <오감으로 느끼는 행궁동>도 액자 대신 모니터를 활용한 전시로 대면과 비대면 경계선에서 시민들에게 예술 향유 기회를 제공했다. 행궁동 내 6개 거점을 중심으로 거점 내 모니터 14개에는 적게는 7 ~ 8개, 많게는 수십여개 작품이 번갈아가며 그림과 영상 형태로 송출되며 볼 거리와 느낄 거리 모두를 더했다. 코로나19 사태라는 특수한 상황 속 저녁 일찍부터 문을 닫은 가게 인근 거점에서는 2 ~ 3층에서 빔 프로젝트를 활용해 각 가게들에 빔을 송출하며 코로나19 사태가 안긴 행궁동 거리의 율적함을 씻어냈다.

매년 프로야구가 개막하면 관중 유입으로 주변 상권의 수익이 비시즌 대비 적게는 10%, 많게는 45% 이상 증가한다는 통계가 있다. 황량해진 수원, 특히 행궁동 내 카페와 공방을 보면 프로야구 개막 연기 및 무관중 경기 진행에 따른 야구장 주변 상권의 상황과 크게 다를 바 없다고 보여진다.

다만 최근 들어 행궁동은 물론 성 박 마을에도 볼 거리가 많은 수원의 모습이 대면과 비대면 프로그램의 조합으로 조금은 원래 모습을 찾고 있다는 생각이 든다. 당초 비대면 트렌드는 예견된 미래였지만 코로나19 사태로 가속화 된 느낌에 강하다. 가속화 된 미래 속 관내 공공·민간 예술기관은 코로나19 사태 속에서도 무기력하게 문을 닫거나, 프로그램을 전면 중단하는 대신 대안을 빨리 찾아냈다. 그 대안 안에 담긴 메시지는 호접지몽과 물아일체를 플랫폼 삼은 문화예술을 향한 의지도 희망이었다.

대면 예술은 각 작가들의 예술성과 학예사들의 전시 콘셉트 설정 등이, 비대면 예술은 철저한 준비성과 기술의 결합이 성패를 좌우한다는 차이점이 있다. 하지만 여기에도 예술인과 행정가 모두의 역할이 중요하다는 점과 호접지몽, 물아일체를 플랫폼 삼은 문화예술을 향한 의지와 희망이 담겨 있다는 공통점이 있다.

지역 사회 속 문화예술 행사가 지속되는 건 단순 공공기관의 직무수행, 민간 예술인들의 예술혼 발현에 그치지 않는다. 비대면 행사를 통한 지역사회의 매력 어필은 언젠가는 끝날 코로나19 사태 이후 방문객을 향한 장기적 관광 프로젝트라 할 수 있다. 아울러 코로나19 사태 속에서도 작게나마 수원을 찾는 이들을 향한 예의이자 감사함의 표출이다. 다가오는 2021년은 코로나19 사태가 종식되는 해이자 지역 사회 문화예술 재부흥의 시발점이 되는 해가 되길 기대한다.